

4·3유족회-기념사업위 주최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심포지엄'

유엔 보고관 "4·3 해결위해 모든 협력"

4·3학살 가해자 서훈 박탈
금전적 피해 보상과 함께
트라우마 치유 방안 절실
4·3왜곡하고 피해자 능멸
처벌가능 법적 조치 필요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는 19일 제주시 갈호텔에서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유엔 특별보고관은 기조강연을 통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유엔 차원 모든 협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희민기자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부터 군사 독재정권 시절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한국의 과거사 사건을 통해 제주4·3을 바라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는 19일 제주시 갈호텔에서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민주화와 과거 청산'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 안병욱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과거사 문제는 친일반민족행위나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문제 그리고 군사정권 하의 인권침해 문제들을 감안할 때 남아공과 중남미, 스페인 등의 사례들을 한꺼번에 떠안고 있는 형국이다. 그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언급했다.

안 전 위원장은 이어 "과거청산 문제는 민족통일 문제와 더불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고서는 국가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약하기 어려운 것처럼, 과거청산 없이는 미래 한국 사회의 올바른 창조적인 전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파비앙 살리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도 기조강연에서 "과거에 발생한 모든 인권침해는 반드시 진실과 정의, 배상, 재발방지 등 4가지가 지켜진 상태에서 이야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의 과거사 중에서도 특히 제주4·3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은 모든 협력을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피력했다.

기조강연이 끝난 뒤에는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일제 식

민지기 전쟁 동원과 인권 피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군사독재시기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등 4개의 세션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주4·3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세션에 포함됐다.

이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김종민 전 국무총리 소속 4·3위원회 전문위원은 "당시 학살극에 앞장섰던 주요 가해자들은 군·경의 요직을 거치며 승승장구하며 호위호식 했다"며 "역사적 정의(定義)를 위해 이들의 서훈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하며, 최근 사실상 무죄 판결인 '공

소기각' 선고를 받은 수형인 문제도 이제는 4·3군법회의 자체를 무효화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만으로 피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유족들이 70년 넘게 시달리고 있는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며 "특히 제주4·3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피해자를 능멸하는 혐오 발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비자림로 공사 24시간 지켜볼 것"

시민모니터링단 발족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이 20일부터 재개되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현장을 24시간 기록한다.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인 '비자림로를 지키기위해 뭐라도 하는 시민모임'은 19일 금백조로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 결성을 알렸다.

시민모임은 기자회견에 앞서 별목이 예정된 나무에 '제주 난개발 반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삼나무로 만든 집을 설치했다. 삼나무집에 그린디자이너 이진아(37)씨가 24시간 생활하며 비자림로 공사현장 기록에 나선다. 이씨를 도와 시민모니터링단 10여명이 교대로 활동할 예정이다.

시민모임은 "한사람이 비자림로 숲을 지키기 위해 이사를 온다"며 "우리는 비자림로 공사현장에서 어떻게 비자림로가 파괴되고 삼나무가 학살되고 제2공항이 시작되는지를 기록하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여가는 쓰레기, 말라가는 지하수, 오염되는 바다 등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암울한 제주의 미래에 대해 격렬한 토론을 벌여야한다"며 "시민모니터링단이 활동하는 비자림로 공사현장이 격렬한 토론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자림로 공사 상황을 기록할 이진아씨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아름다운 풍경을 남겨주는 일"이라며 "부디 청정 제주가 사라지지 않도록 제주의 난개발을 멈춰달라"고 밝혔다. 홍희선기자

강도미수 중국인 불법체류자 검거

주택 등에 침입해 흥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갈취하려던 2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불법체류자 A씨(27)를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1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주택에 침입해 소지하고 있던 흥기로 B씨(57·여)를 위협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날 오전 11시25분쯤 첫 번째 범행 장소 인근 택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C씨(46·여)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여 만에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숙소에서 잠을 자던 A씨를 체포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기자

도내 27개교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선정

교육부·과기정통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로 제주지역 27개교(초 20, 중 2, 고 5)를 포함해 총 1832개교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교육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지난해보다 191곳이 추가 지정됐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에 대비해 소프트웨

어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공동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교육청 협력을 통해 교원 확보 및 연수, 예비 교원 역량 강화, 물적 기반 확충, 교사 연구회·학생 동아리 운영, 교재·콘텐츠 개발·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은지기자

몰질하던 70대 해녀 숨져

19일 오후 2시15분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인근 해상에서 몰질하던 70대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소방서는 몰질하던 A

(79)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동료해녀의 신고를 받았다. A씨는 동료 해녀에 의해 구조돼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희선기자

불법조업 어선 적발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수산법집행조업구역에 위반한 완도선적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구역을 위반한 혐의로 9.77t 완도선적 연안복합어선 N호 선장 이모(54)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N호는 18일 오후 4시50분쯤 추자도 남서쪽 9km 해상에서 어구에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던 중 해경의 검문검색에 의해 적발됐다.

해경은 이씨를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희선기자

단독주택 이용 불법숙박업 여전 '횡행'

제주시 올들어 31건 적발해 행정조치... 신고센터 개설

제주시 지역에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이용,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불법숙박업을 운영한 사례 31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동 지역에서는 13건, 읍면지역은 18건이 적발된 가운데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을 이용한 불법숙박업 운영이 23건, 공동주택 4건, 기타 4건 등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미분양주택·다세대주택, 농어촌 지역의 개조된 구건물 등 인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 등에서 불법숙박업 운영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 공공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나 허가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시는 이와관련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시청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에 들어갔다. 신고센터에는 시 관내 숙박업소 현황과 관련법 및 허가기준에 대한 안내 등이 개설돼 있다. 이요형기자

정말! 억울하지요!! 돈 잃고, 사람 잃고..

빌려준 사람도 두 다리 쪽 뺏고 편히 주무시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전화주세요.

집행권원(판결문)있는 민사채권, 공사대금, 물품대금, 기타 등등..

아, 잠깐!! 저희 회사는 착수금(선불경비)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신뢰를 받겠습니다.

세일신용정보(주)
 (064)757-7770, FAX. 757-7769

레드향 · 천혜향 · 한라봉 맛과 식감을 좋게 하려면

밀 거름
 이노페스 1,000㎡당 7~8포(포당 15kg)
 21-복비 1,000㎡당 3포

추 비
 6월 → 이노페스 3포 21-복비 3포 8월 → 이노페스 3포

업면시비
 ① 꽃이 성상개비만 할때 **해피한그린 25말 + 클루칼 25말**
 ② 꽃이 콩알만 할때
 ③ 2차낙과 10일 이후 7일간격 2회
 ④ 색이 변해갈때 7일간격 2회
 ※ 당 상수를 위해 필수 업면시비 할 것(농약 혼용 가능)

관 주
 6월과 8월에 1,650㎡당 뿌리원 1봉 토양관주
 ※ 세균이 보이는 시기이므로 뿌리 활성화로 당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 염류중화작용에도 큰 효과가 있음

자세한 사항은 21세기 최첨단농업 "아이농법"
 만감류(레드향, 천혜향, 한라봉) 교육교재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필요한 농가에서 연락을 주시면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최첨단 농업인 하하농법을 실현하며 농가에 큰 수익을 드리는

금방이감쿨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고개속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를 쓰이는
※ 원터치자동약물주입기의 장점 ※

- ▶ 사용 및 후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물은 고품질,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임,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물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기부전클리닉 ▶ 조류약물주입법
 ▶ 전립선클리닉 ▶ 남성회성기질환 ▶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원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 제주은행 2F